



11월 11일 얼바인에 있는 버라이즌 야외극장(Verizon Wireless Amphitheatre)에서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회개와 영적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열렸다.

“주여! 주여! 주여!” 한인들의 기도 함성 미국을 깨웠다

11월 11일 다민족기도회 한인 4천명 참석해 뜨겁게 기도

남가주 한인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한 번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다. 11월 11일 얼바인에 소재한 버라이즌 야외극장에서 열린 “A Line in the Sand 다민족연합기도회”에 참석한 한인 성도들은 한국 특유의 “주여 삼창”과 통성 기도로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부르짖었다.

이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돼 9시까지 계속됐다. 먼저 국가와 군인들, 정치인들, 할리우드 영화계와 예술인들을 위한 합심 기도가 1시간 동안 진행된 후, 본격적으로 민족별 기도회가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 흑인들의 기도회가 시작됐으며 이어 라티노들, 이스라엘인들의 기도가 각각 30분씩 계속됐다. 그러나 오후 6시 45분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기도회는 무려 4배가 넘는 2시간 이상 뜨겁게 진행됐다.

낮 시간 수백명대를 간신히 유지하던 버라이즌 극장은 한인들의 기

도 시간이 되자 앞줄부터 채워지기 시작해 1만5천명 수용 규모 행사장의 3분의 1 가까이 채워졌다. 물론 절대 다수가 한인들이었다. 주최 측은 한인 참석자 수를 4천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사 장소가 두번이나 바뀌는 등 장소 선정에 차질과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기도 열심은 막을 수 없었다.

기도회에서는 약 20명 강사들이 각각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제목은 크게 △자신과 나라의 죄에 대한 회개 △교회와 가정의 회복 △학교와 문화의 회복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대부흥을 위한 기도 등 5개로 나뉘어졌다. 각 기도제목마다 3명의 강사가 대표기도 형식으로 기도하고 4번째 강사는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강순영, 권혁민, 김기동, 김영길, 김인식, 남성수, 민경엽, 박성규, 박용덕, 박희민, 정영

희, 정장수, 진유철, 한기홍 목사 등 남가주에서 잘 알려진 1세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스티븐 정 목사 같은 영어권 사역자, 정기정 목사 같은 1세 청년 사역자도 참여했고 한인 2세 캠퍼스 선교단체인 KCCC 소속의 크리스틴 최 양도 기도 강사로 참여해 대학 내 기독교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 강사들은 미국의 불신앙과 타락을 회개하고 대부흥을 통해 미국을 깨워 달라고 간구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A Line in the Sand 측과 함께 준비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이 기도회의 불길을 한인교회 내에서 전국 규모로 이어갈 계획이다. 미기총은 내년 1월 은혜한인교회, 2월 달라스, 3월 뉴욕, 4월 워싱턴DC, 5월 시카고, 6월 시애틀 등 6개 지역에서 “미주순회연합기도회”를 한인교회 중심으로 개최하게 된다.

김준형 기자



다민족연합기도회에서 한인 목회자들이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여러 다민족들과 한인들이 손을 맞잡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있다.

ASO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학교”

2014 후원의 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5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6:30
- 장소: 옥스포드팰리스 호텔 (Oxford Palace Hotel) 745 South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9-8000
- 순서: 1부 - 환영인사 및 만찬 / 2부 - 후원의 밤 행사
- 모집과정: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 2014년 겨울계절학기: 12월 15일~1월 23일
- 2015년 봄학기 개강: 1월 26일 (월)
- ESL 봄학기 개강: 1월 5일 (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UCS신학대학교가 개교 7주년을 맞이했다. 감사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CS신학대학교 개교 7주년 “인성과 영성 갖춘 인재 양성”

UCS신학대학교가 개교 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최사라 목사의 인도로, 정시우 목사가 설교, 김영대 목사가 축사, 윤성원 목사가 권면, 박성규 목사가 축도했다.

정시우 목사는 “7년 전 밀알의 정신으로 학교를 개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총장 내외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교를 통해 전했다.

김영대 목사는 “초심을 기억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신학교가 되라”고 축사했다.

윤성원 목사는 “7주년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이다. 7주년을 맞은 UCS가 마7:7의 말씀처럼 구하고 두드리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라”고 권면했다.

인사를 전한 최 아브라함 총장은 “앞으로 더욱 더 겸손하게 순종하겠다.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데 본을 보이고, 바른 예절을 겸비한 인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한편, UCS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지침으로 인재 양성이며 학생들은 졸업한 후 미국 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전화: 213-434-3456
주소: 주소 1543 W. Olympic Bl. 3rd fl. Los Angeles CA90015
김나래 기자

“작은 교회 사립학교 설립 돕고 싶어”

기독교 사립학교 뉴헤븐아카데미

“동성에 교육은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던 반기독교 교육의 일부가 드러난 것뿐이죠.”

뉴헤븐아카데미 교장 신현호 목사의 말이다. 성경과 기도를 몰아낸 채 진화론을 기초로 하는 반기독교적 공립학교 교육은 결국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 목사는 그 외에도 공립교육의 문제로 영성 교육의 불가, 인성 교육의 부재, 수준 높은 교육 불가를 꼽았다. 공립학교에서는 신앙에 관한 가르칠 수 없고, 인성보다는 성적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교육으로 한 명, 한 명 학생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다.

뉴헤븐아카데미는 새하늘교회가 운영하는 K-12학년 과정의 기독교 사립학교다. 신 목사는 “교육은 신명기 6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지키려면 교회가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헤븐아카데미는 ACE 미니스트리가 45년 전 개발, 발전시켜 온 홈스쿨링 교재를 사용한다. 이 시스템으로 교육하는 학교는 145개국에 6천여 개에 달한다. 교사는 없고 수퍼바이저가 학생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학생들은 신앙 안에서 영적, 인성적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학습 단계에 맞게 학업을 진행해 가게 된다. 공립학교에서 1-2등을 다투던 한 중학생도 뉴헤븐아카데미로 오면서 “성적은 좋지만 공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숙제를 잘하고 문제의 답을 잘 맞추는 것이 공부 아니라는 것. 이제 2년에 접어든 이 학교의 학생 수는 10여 명이지만 성경 말씀과 기도로 부쩍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띈다고 한다.

공립학교 수학 교사로 20년 간 일하다 남편 신현호 목사와 함께 이 학교를 연 신하나 사모는 공립학교 교육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는 “성경은 그저 ‘좋은 책’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면서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좋은 대학에 못가는 것도 아니다. ACE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미국 주요 명문대에 입학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요즘 남가주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그는 “큰 교회는 물론이지만 사실 작은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들에게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일을 기쁘게 돕고자 한다. ACE의 정기 교육에서 일주일 간 훈련받고 교장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시에 보고한 후 정식으로 개교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시 ACE가 제공하는 몇가지 추가 지침을 따르면 교육 과정에 대한 정식 인가(Accreditation)도 나온다.

“많은 돈, 많은 사람,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어느 교회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소: 2909 Beverly Bl. Los Angeles
문의: 213-500-3721, 213-500-7956
김준형 기자



수퍼바이저 신하나 사모와 교장 신현호 목사

쥬빌리통일기도회

LA에서도 발족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북한 구원 기도운동인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LA에서도 시작됐다. 2004년 부흥한국과 사랑의교회 대학부가 주축이 되어 북한의 구원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던 이 모임은 한인세계선교회(KWMC)를 통해 전세계로 기도 네트워크가 확대됐고 현재 한국 내 11개 지역, 해외 11개 지역으로 확산돼 있다. 미주에서는 이미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등에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지난 11월 4일 저녁 WePray선교센터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 행사에서는 시드선교회 총무이사인 박신욱 목사가 대표기도했으며 한국 사랑의교회 오상훈 목사가 설교했다.

문소현 기자

남가주 새언약교회 부흥회

“축복의 통로” 성황리에



부흥회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했다.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지난 11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서울 두란노교회를 담임하는 이상문 목사를 초청하여 3일 동안 “축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2014 가을철 대부흥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부흥회에서 이상문 목사는 “주님의 도구(마2:1-9)”, “악인과 의인의 형통(시73:1-12)”, “그리스도의 흔적(갈6:17-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큰 은혜와 감동을 전해 주었다.

문의) 213-434-1083

교계 단신

부모님선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

노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부모님선교회(회장 주도진 목사)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남가주성서교회(안병준 목사)에서 11월 22일 오후 6시 드린다.

설교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인 김기동 목사가 한다. 오후 5시부터 식사도 제공된다.

주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621
전화: 714-319-5397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장에 강신권 목사

10월 30일 열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 총회에서 동문회장에 강신권 목사가 당선됐다.

강 목사는 세계성경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코헨대학교 설립 총장이다.

새 빛 한 의 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으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 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KAKAO

TALK

213-500-4563

ID:DKHEALTH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 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은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 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화하였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스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특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DKHEALTH, INC
LIC #: 0146629

예장 합동총회 미주노회 동부와 서부에서 복구

관계 단절 후 18년 만에... 미주 교단 지형에 변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미주 서부노회가 11월 6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복구됐다.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미주 노회들이 18년 만에 복구됐다. 합동총회는 143개 노회, 12,000여 교회, 3백만 성도 규모의 한국 최대 개신교단으로 이 교단이 미주에 노회를 다시 두게 된다는 것은 미주 한인교계의 교단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합동총회는 1974년 제59회 총회에서 미주 노회를 조직할 것을 허락했다. 총신대 출신들이 미주에서 이민목회를 하면서다. 이에 미주 동부노회에는 11개 교회, 서부노회에는 15개 교회가 소속되며 미주노회가 시작됐다. 곧 1979년 제64회 총회에서는 노회를 아우르는 미주 대회도 조직이 허락됐다. 그러나 이후 미주대회 불법 분리 사건, 노회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 노회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 상호 고소사건 등이 빚어지자 합동총회에서는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 미주 노회를 폐지하지는 않건을 다루게 됐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 또 상호 관계상의 문제로 인해 폐지가 아닌 "법적, 행정적 독립", "우호 관계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말만 독립이었지 미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방적인 관계 단절이었다. 미주총신대의 총회 인준도 그 당시 취소됐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순간에 소속을 박탈당한 미주 목회자와 교회들

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1996년 10월, 가장 먼저 미주총신대의 학장 조해수 목사를 중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여전히 모교단에 남길 원하던 이들은 21개 당회 이상을 모아 아메리카노회를 구성한 후, 합동총회에 재가입을 시도했지만 이것조차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합동미주총회 아메리카노회를 창립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재외합동, 미주합동, 해외합동 등 다양한 교단이 생겨났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미주 노회들을 복구하기로 결정이 됐다. 국제화 시대에 미주 지역에 노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교세면에서나 선교적 측면에서나 이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 교회들의 반응이다.

우선은 물론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목회자는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11월 6일 서부노회 복구가 선언되며 첫 노회가 열린 자리에는 목사회원 65명 중 51명, 장로회원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적지 않은 수다. 그동안 총신 출신 목회자들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나 미국교단 CRC, PCA 등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과 달리 과거 미주노회에서

갈라져 나온 군소교단에 속했던 이들에게 모교단으로, 그것도 한국 최대의 장자 교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든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동총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 당한 후, 교단을 설립해 잘 활동하고 있는데 다시 미주노회가 복구된다면 목회자들이 대거 빠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18년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교단이 다시 타 교단의 노회로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합동총회 입장에서도 그 교단 소속 목회자나 교회들이 현 합동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이나 방향, 신학 교육 요구 사항과 100% 부합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미주 노회를 복구함에 있어서 과거에 미주 노회 소속 교회나 목회자들을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회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그 자격을 검증한 후, 노회 가입을 허락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합동총회의 입장에서는 복구가 아닌 "헤쳐모여"식 재설립이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노회 복구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인 일부 구성원 때문이다.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의 회원들이 이번에 미주 노회로 다수 가입했다. 이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7차 총회에서 이운영

백남선 총회장과 일문일답

1. 18년 전 한국과 미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뭔가?
행정적이며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이다.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2. 그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돼 재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는가?
문제보다는 복구의 필요성에 주목해 달라. 세계선교를 위해 우리 총회가 미주에도 자리잡게 된 것이다.
3. 관계 단절 후 미주의 교단들이 분해, 난립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4. 노회원들의 명단을 보니 타 교단에 속한 분, 심지어 총회장을 역임한 분까지 있다. 이중 노회원을 허락하는가?
법리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허용 가능하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정리해 가면 될 문제다.

5. 노회원들이 과거 미주 노회 출신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았다. 기존에 미주 노회가 있었기에 복구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사실은 재설립이라 봐야 한다. 꼭 총신 출신이 아니더라도 신학적 성향이 우리와 일치하고 정식으로 목회하고 있는 분이라면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 그렇기에 기존의 것을 다시 그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6. 합동총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선 총신 신대원을 졸업해야 하고 타 교단 목사는 총회신학원을 통해 편목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제개혁대 출신들이 합동총회에 가입이 가능한가?
교단 직영신학교가 아닌 인준신학교인 국제개혁대, 버지니아 크리스천대 출신들은 총회신학원 교수들이 미주에서 열게 될 편목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백남선 총회장과 손경호 노회장

서부 지역은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박헌성 목사)을 인준신학교로 인가했다. 서부노회를 복구하는 예배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총회장 백남선 목사를 비롯해 서기 권재호 목사 등 임원들이 방문했다. 백남선 목사는 "진리 편에 섭시다"란 설교에서 "노회를 복구함에 있어서 방해가 많았지만 결국 노회가 복구됐다"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세계 복음화에 힘쓰자, 진리는 승리하는 법이다. 진리와 믿음, 정의 편에 서서 쓰임받자"고 강조했다. 노회복구 위원 민찬기 목사도 "큰 역사를 위한 축복의 초석이 놓였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았지만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증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대-버드-서쪽인삼빌딩)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이리향마케팅) T.213.453.6624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RETROSPECT & PROSPECT OF ASIAN MISSIONS

EAST-WEST CENTER MISSION SEMINAR 2014

SPEAKER



Dr. Scott Sunquist
Dean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r. Bong Rin Ro
President of Hawaii Theological Seminary

Sponsor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S
East-West Center Miss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WHEN
November 21(Fri), 2014. 08:00AM - 5:00PM
November 22(Sat), 2014. 08:00AM - 12:00PM

REGISTER
Registration Fee: \$20 online (www.ewcenter.org/seminar) / \$25 walk-in

WHERE
DMin Seminar Roo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CONTACT US
EWC MR&D Seminars: 949-330-3800
464 E. Walnut St, Suite 220, Pasadena, CA 91101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에서는 어떤 선교 방법을 썼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12사도와 바울 선생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 로마제국의 혹독한 박해 아래서도 초기 교회는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 종래 로마제국을 기독교화 하는 데에 이른다. 그 후 교회는 2천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 방법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 ‘선교방법론’이라 한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 교회가 파송한 이들이 대종을 이룬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역사는 일천하여 130여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교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아, 다른 선교지에서 시행했던 선교 정책을 교훈 삼을 수 있었다. 이미 시행된 정책 중, 좋은 점은 배우고 시행착오를 일으킨 일은 반복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선교사들은 대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온 이들이다. 이 선교사들은 열정 하나만을 갖고 현지에 왔지만, 선교 사역이 생각처럼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었다.

경험 없는 젊은 선교사들이 생소한 선교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시작할지를 가장 깊게 고민한 이가 한국의 첫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였다. 그는 본국의 해외 선교부에 경험 많은 선교사로부터 선교의 경험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편지를 몇 차례 보냈다. 이에 따라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 해외선교본부는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활동을 오래 한 네비어스(John Nevius)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한다. 네비어스는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선교방법론에 대한 탁월한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었던 선교 이론가였다. 본부는 그에게 안식년 귀국 길에 한국에 들러, 초보 선교사들에게 선교방법론을 교육하라는 훈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네비어스는 부인을 대동하고 1890년 6월 한국에 왔다. 그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신참 선교사들을 모아 놓고 선교 전략과 방법론을 강론했다. 이것이 유명한 ‘네비어스 선교정책’이다. 이 선교 정책으로 한국 교회는 비약적 발전을 했고,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 선교를 일컬어 ‘근대 선교의 기적’이

라 평한다. 그러면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 핵심 몇 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교사들 개인은 폭넓은 순회 선교를 통하여 전도한다. 2) 성경이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자립전도: 신자 각인은 타인의 [복음의] 선생이 된다. 4) 자립정치: 모든 그룹은 봉급 받지 않는 지도자들과 봉급 받는 조사(助事)들을 후에 각 지역과 전국적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한다. 5) 자립보급: 모든 예배당은 신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교회가 설립되면 조사들의 봉급을 책임진다. 목사들의 봉급은 결코 선교사들의 보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네비어스 선교정책을 줄여 3자정책(三自政策: Three-Self Principles)이라 말한다. 즉 자치(自治: Self-Government), 자립(自立: Self-Support), 자전(自傳: Self-Propagation)이다. 이 3자 원칙은 원래 영국 런던 ‘교회선교협회의’ 선견 지명이 있었던 총무 헨리 벤(Henry Venn)의 3자 정책 선교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 핵심은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원조 받지 않고 자기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전도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헨리 벤은 또한 선교부의 활동 시한에 대해 언급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일단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은 토착교회 지도자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떠나라 했다. 그리고 선교 되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 역설했다. 물론 이 이론은 후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 당시는 새로운 전략이었다.

이 선교정책은 한국에 나와 사역하던 여러 선교회 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 선교부 만으로는 그 효력을 내기 어렵고, 선교회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네비어

스가 한국에 오기 1년 전에 선교회 간에 협력을 위한 기구가 발족되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와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 간에 1889년에 ‘장로교선교연합공의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공의회는 호주 장로교회 데이비스 목사가 갑자기 타계함으로 끝이 났다.

그 후 1892년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한국에 진출하자, 남·북 장로교회는 1893년 다시 이 연합공의회를 발족시켰고 후에 호주 장로회와 캐나다 장로회가 가입하였다. 이 공의회 목적은 “한국에 개척교회의 신앙과 장로교회 정치 형태를 갖는 하나의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처음 이 기구는 협의체에 불과했으나 1901년부터 한국교회 대표들이 참가하면서 1907년 노회 조직까지 실제 한국 장로교회 치리를 담당할 유일한 기구였다. 이 공의회 중요 사역은 선교지 분할이었다. 또한 네비어스 선교 정책을 한국 실정에 맞는 선교 세칙을 만든 일이다.

선교지 분할 정책은 예양협정(禮讓協定: Comity Arrangement)이라 한다. 이 정책은 재한 장로회 선교회, 즉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회를 간에 먼저 이루어졌다. 선교사들은 같은 장로교회가 동일한 지역에서 중복적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 선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북장로교회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경상북도,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라도와 충청도,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 지역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선교지 분할 정책은 교파의 장벽을 넘어 북장로회와 북감리회 선교회 사이에도 이루어졌다.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의 선교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그 활동 범위가 북쪽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두 선교회가 동시에 선교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언더우드는 이런 선교 사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선교지를 분할하지는 안을 북감리교 선교부에 내어 놓았다. 그의 이 제안은 두 교회가 협의를 한 끝에 1892년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선교지 분할 정책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후에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 다음 회에서 계속 하기로 한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가 신임회장에 윤우경 집사(앞줄 왼쪽 여섯번째)를 인준했다.

OC전도회연합회의 새 이름 “OC평신도연합회”

신임회장은 윤우경 집사 인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11월 9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제35회 총회를 열고 단체명을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OC 지역을 대표하는 평신도 연합체이면서 매년 연합전도집회와 연합성가제 등으로 교계 연합에도 앞장서 왔다. 연합회는 1980년 OC남전도회연합회로 창립되어 활동하게 되면서 기독교전도회연합회란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요즘 평신도들은 전도회보다는 교회 내에서 셀교회, 다락방, 구역 등에 소속되기에 전도회라는 이름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점에서 평신도연합회로 단체명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영어명은 OC Korean Christians Association

이번 총회에는 임원과 이사 등 2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 이사장 윤우경 집사를 회장에 인준했다. 윤 집사는 2000년부터 연합회 활동을 시작해 31대, 32대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신복수 회장과 임원진은 윤 집사를 총회에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총회는 만장일치로 그를 회장에 인준했다. 부회장 인준 등 임원 구성도 윤 회장에게 일임했다.

1975년 이민 온 윤 회장은 평신도 연합 활동에도 열심이였지만 남가주에서는 언론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주복음방송 아나

운서 및 기획국장, 사업국장 등을 지냈고 크리스천중앙TV 방송에서 3년간 활동했다. 2012년 이후 최근까지 크리스천헤럴드 사장 겸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는 감사한인교회다.

신복수 직전회장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합회 회장을 맡아 눈물도 많이 흘렸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임원들과 이사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우경 신임회장은 “80세 고령임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연합회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2014년 한 해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큰 모범을 보여준 신복수 회장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그 발자취를 따라 열심을 다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 평신도들의 건강한 연합에 밑거름이 되어 교회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연합회는 11월 16일 주일 오후 5시, 제33회 이사회 총회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하며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제35대 회장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된다. 장소는 미정이다. 문의: 유재원 부총무, 714-501-5479

김준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성령을 받게 하심은

민수기 11:16-3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억하기를 사도행전 2:1 이하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신 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왕에게나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불들어 세우시고 그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불평불만을 싫어하시는 성령님

민수기 11:1-6까지 보면 “백성이 여호와와 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라 여호와와 불로 그들 중에 불어사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불이 그들 중에 불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위험도 경험하면서 흥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도록 길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를 비교하면서 불만, 불평으로 믿음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고 이들이 위와 같이 원망하던 그 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공급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포로로 잡혀 끼어든 사람도 있고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열에 함께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탐욕을 일삼으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쉽게 흉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0% 믿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게만 내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흥해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 흥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의 먹을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음에도 그들은 또 다른 불만과 불평을 토로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특별히 공급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 불평 시비하는 것이 된 것

입니다. 10절에서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진노가 또 내리게 됩니다. 11-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당히 당돌하게 항의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능력의 사역자 모세가 이렇게 상당히 인간적이고 비판적이며 또 절망적인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하고 불평을 한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금방 전염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불평과 원망, 시비, 책망을 계속 하니가 모세도 그만 지치고 짜증이 난 것일 겁니다.

양떼는 그렇다 하더라도 목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목자도 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금방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했는데 하나님은 16절에서 광야교회의 조직을 최초로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육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이 없다고 항의를 하니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리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2. 일꾼들을 세우시는 성령님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와 말씀은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시던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민11:24-25)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도록 하심으로 모세의 존재를 그들이 재인식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데리고 온 70명에게 모세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광야교회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의지대로 하

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즉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언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니다. 예언은 모세만 하게 돼 있었지만 장로들이 모세와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언을 한 번씩 하게 해 주시고 모세는 목자의 지위에 하나님이 올리시고 이 장로들은 봉사자의 지위에 세우시니가 하나님과 모세와 장로들의 사이가 저절로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백성들은 몰라도 성령 받은 70명의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민수기11:26에 “그 녹명된 자 중 열달이라 하는 자와 메달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것을 보고 한 소년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 사람들을 금지시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합니다.

3. 상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걸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 두었더라”(민

11:31-32) 하나님께서 한 달간 먹여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매일같이 주실 것을 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내어 쟁기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민수기11:33에 고기를 손질하고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라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 시비만을 일삼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다 장사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목자로 세운 모세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행패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욕심내어 쟁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조용히 믿음으로 따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목자와 함께 천국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영적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이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이 없어 목이 타고 배불리 못 먹어서 허기가 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조건을 부러워한다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 시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시켜서 그 믿음이 더욱 연단을 받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온전히 영글어서 하늘나라로 추수해 가시기 위하여 연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로, 온전한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말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 상담학
 석사: 신학 / 목회학 / 상담학
 박사: 신학 /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장: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ongeui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edu
 www.chongshinusu.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PARAGUAY CHRISTIAN PRIVATE SCHOOL

파라과이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선교에 Heart 있는 영어 & 수학 선생님 모집합니다.

<자격>
현재 대학 졸업생 아니면 졸업반.
주일학교 경험자.
교사 무경험자도 Ok.

Colegio JIS
Ciudad del Este, Paraguay

기간 : 02.05.2015 ~ 12.05.2015

비행기 왕복 + 비자 비용 + 현지 선생님과 같은 사례비 + 숙식 제공

Eunice Han
Tel. 213)505-5040
Email : eunicehan@gmail.com

제가 풋볼을 보기 시작한 것은 대학 기숙사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전에도 볼 기회는 많았지만, 하나도 재미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보면서 풋볼의 규칙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이해가 되고, 그 흐름을 읽기 시작하면서 풋볼도 스포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팀이 서로 팽팽하게 싸고, 전진해서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면 터치다운이 되어 점수를 얻는 단순무식한 게임이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것일까요? 풋볼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풋볼을 설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풋볼 새 신자를 얻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10야드를 4번 공격에 전진해야, 다시 또 4번의 공격 기회를 얻는 것부터 설명합니다. 한참 설명하고 나면, 왜 10야드를 꼭 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규칙이라고 말하면, 그럼, 10야드 이상을 가면 규칙 위반 아니냐고 따집니다. 10야드 이상 가는 것은 보너스로 보면 되고, 많이 간 그 지점에서 다시 10야드 가는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 드디어 경기를 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나오는 질문

풋볼이 재미있나요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은 왜 4번째 공격할 때는 공을 뺏아 버리느냐고 묻습니다. 4번째 공격에 10야드를 전진 못 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으로 멀리 차버리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설명해 주면 그때부터는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며, 노란 수건을 던질 때마다 그 이유를 알아가면서 경기의 규칙을 점점 터득하게 됩니다. 규칙을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러면 안 되는 데...” “다음 공격은 던져야 해” “아니야, 잡고 뛰어야 해”하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기관람은 재미있어집니다.

모든 스포츠는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 즉 자기도 경기를 관람하며 작전을 짜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집니다. 코치와 작전이 맞아 떨어지면 더 신이 나고, 자기가 짐작한 작전과 코치가 세운 작전이 빗나가면 거기서부터 관람하는 반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탄이 생기기 시작하고, 짜릿한 흥분까지도 느낍니다.

무조건 ‘저런 걸 왜 봐’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차근차근 규칙을 배워가면, 그 안에 나름의 감격과 흥분과 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게임을 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의 왜곡되고 치우친 보도로 인해 점점 진리에 무관심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성경을 배워가면, 어느 날 깊숙이 신앙 세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더불어 작전을 짜는 자리까지 와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문제는 옆에서 규칙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 혼자 경기를 즐기느라고, 설명을 원하는 새 신자를 놓치는 것입니다. 풋볼 설명하듯 예수님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뒷 모습



현 순 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사람들은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화장과 치장을 하기도 하지만 심하면 말쑥한 얼굴을 몇 번이고 뜯어고 치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뒤에서 봐야 한다. 어깨를 펴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쿿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꼭 숙이고 힘 없이 걷는 이는 심신이 괴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은 뒤에서 봐야 한다.

십계명에서 보여준 모세의 뒷 모습: 태어난지 몇달만에 나일강에 내다 버려진 아기가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의 양자가 되고 또한 친어머니가 유모로 궁전에 들어가 애를 키우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인 모세는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 40년을 궁전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던 어느날 애굽인 감독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왕이 분노해서 모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모세는 살인 수배자가 되

어 궁전을 급히 떠나야 했다. 고개는 꼭 숙여지고 어깨는 축 쳐져서 힘없이 궁전을 떠나는 모세의 뒷 모습, 많은 아픔과 한을 안고 정처없이 궁전을 떠나는 모세의 뒷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화려한 부귀 영화도 한시간에 묻어뭍힐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뒷 모습: 나는 미국에 60년대 말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한인교회들을 위해 오래 일했고 또한 문을 닫기로 결정한 교회를 잘 키워 재미있게 일하다 한국병에 걸려 한국에 나가게 되었다. 그 때 어머니는 반대하셨다. 더욱 외아들인 나를 보고자 이곳에 왔는데 내가 떠나면 자신은 너무도

외롭다는 것이다. 나는 몇 번 한국에서 일할 좋은 기회를 자녀들 때문에 놓쳤는데 이번에 놓치면 내 나이로 봐서 다시는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한국으로 나갔다. 정말 신이 났다. 매일 새 교인들이 몰려왔고 2년 후에는 예배 장소를 큰 곳으로 옮길 정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는 내가 떠나자 갑자기 쇠약해져 모든 의욕이 없어진다는 소식이다. 나는 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했고 또한 같이 살자고 권했으나 딸이 있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다. 떠나는 날 비행기를 타려고 나가시면서 한 발짝 씩 힘없이 걸어가던 그 뒷 모습은 지금도 내 마음을 아리게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뒷 모습이다.

모든 부귀 영화를 잃고 정처없이 궁전을 떠나는 모세의 뒷 모습이나,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뒷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곳이나 사람들이라도 해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떠나는 분의 뒷 모습은 너무도 진지하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훗날 나의 뒷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구덩이에서 구덩이까지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과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최고의 배경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셉은 유목민의 아들이었고, 엘리트 코스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확률로 말하면 거의 고위층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지전적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갇히는 경력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채색옷도 벗겨지고,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형들의 위협적인 말을 듣지만, 간신히 구덩이에서 목숨을 연장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7세의 요셉은 울며 애원하였지만, 결국 그는 처음 갇힌 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원치 않는 이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덩이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친위대 감옥입니다. 요셉이 갇혀있었던 곳은 히브리 말로 “보오르”인데, 이는 지하감옥, 구덩이,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왕에게 불려 나아가기 전, 적어도 3년 동안을 엄중한 이집트 친

위대 감옥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가정의 총무로서 보디발 집안의 전체 경영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밭에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몸에 쇠사슬이 매였다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몸은 “네페쉬” 곧 그의 영혼, 마음,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표현하였을까요? 요셉의 고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의 고통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여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여준 술 관원에게 또 다시 잊혀졌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은 쇠사슬이 영혼을 꿰고 들어와 심한 고통과 절망의 나라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괴로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끝이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구덩이까지, 즉 형제들이 집어넣은 배신의 구덩이에서 친위대의 환란의 구덩이에 이르러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자각합니다. 그는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하여 노예고등학교와 감옥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집트의 실물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간수장을 대신하여 사무를 보면서 이집트의 궁정 정치를 배웁니다.

구덩이로부터 구덩이에 이르는 고난으로 연단하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과 신하들, 모든 지체자와 종교인들 앞에 세웁니다.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미래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능력은 완벽합니다. 그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나와 이집트를 경영하는 총리가 됩니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 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전식 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올려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6개월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오른쪽 엄지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희(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지(65세, 방배동)
등 수술 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흔차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로 받고 M3세트를 복용 후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략(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졌으며, 신생아가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풀풀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졸다다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돌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28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하며 뇌 혈관질환을 말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의 일부가 죽게 되면 뇌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신체장애가 오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요소로는 고혈압을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벽에 손상을 가져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비만, 지속적인 피임약의 복용과 심장병도 위험요소입니다. 최근 미국 의사협회가 발표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즉 (위험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하는 발음이 어눌해진다. 중심 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저리거나 멍해진다. 갑자기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차대 증상이 나타난다. 한쪽 팔 다리가 다른 사람 살처럼 느껴진다 등. 이와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뇌졸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은 병이 생긴후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졸중은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언어장애, 시력장애, 심한두통, 의식장애, 대소변을 못가리는 차대 그리고 식물인간상태 등, 일단 병이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삶을 연명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으로는 항혈소판제로 불리는 아스피린,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전용해제, 막힌곳의 절제수술, 또는 가느다란 튜브를 뇌에 삽입하고 고인 피를 뽑아 내는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고서 안 치료되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무엇 인지를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 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7장 1-5 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때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11 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beloved 즉 loved.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냐 하고 최고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답변을 love 즉 일반적인 사랑으로 답변 하였습 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틀리니까 계속 물어보신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과는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예방으로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산삼도 아니고, 버섯도 아닙니다. 미네랄을 드셔야만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 셔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피의 순환이 잘 되어서 3일 정도면 몸으로 느낄수 있습니 다.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문의는 213-435-9600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내셔널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엘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렌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셔널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北, 케네스 배 등 전격 석방... 김정욱 선교사만 남아

“대북제재 추가 우려한 조치” 분석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케네스 배(46) 씨와 매튜 토드 밀러(24) 씨가 전격 석방됐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이들이 석방됐으며, 제임스 클래퍼 美 국가안보국(DNI)과 동행해 귀국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이익대표부로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스웨덴 정부를 비롯한 전세계 우방에도 감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스 배 씨는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북한은 억류됐던 다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도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전격 석방했다. 당시 파울 씨는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다”며 “당시 함께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석방됐다는 사실을 비행기에 타서야 알았다. 이들은 나보다 더 일찍 석방됐어야 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씨는 지난 2012년 11월 3일 관광객 5명과 함경북도 나진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

고 2년간 억류됐다. 매튜 토드 밀러 씨는 지난 4월 10일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평양항공 통행권사소 입국수속 과정에서 여권을 찢으며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붙잡혀,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미국의 케네스 배 씨 가족들은 배 씨의 석방을 매우 환영했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온 가족들이 있을 수 없는 추수감사절 선물(배 씨의 미국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빠가 집으로 오게 된 기쁨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이날을 위해 지난 2년간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말했다. 배 씨의 아들 조너선 배 씨는 “7일 오후 늦게 아버지와 통화했는데,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가 좋았다”며 “아버지가 예전 모습으로 곧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며,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미국인 억류자들 석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석방 조치는 김정은이 오바마 정부에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대북제재가 추가될 것 등을 우려한다는 것.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통과나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美 정부 한 소식통은 “이번 석방은 어떤 대가성도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과 인권 개선에 나서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이번 석방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둘은 북한의 마지막 해외 억류자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9일 오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제프리 파울 씨에 이어,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씨가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측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국 단둥에서 국수 공장을 차려 수년간 탈북민들을 돌보던 김정욱 선교사는 그들 중 일부가 북한에 강제 송환돼 걱정하던 차에, 북한 고위급 인사의 권유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구호물품 지원 모색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7일 입북했다 억류됐다. 김 선교사는 무기 노동교화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이대용 기자



성경을 든 교인 ©FLICKR CREATIVE COMMONS/CHRIS YARZAB

국제 성경의 날 24일 최초로 개최

세계적인 성경사역 단체들이 24일을 국제 성경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Bible)로 기념한다는 계획을 전하고, 많은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개인과 교회, 단체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낭독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경의 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미국성경협회(National Bible Association) 리처드 글릭스타인 회장은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주 작은 신실함의 표현”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다”며, “내 인생 또한 말씀을 통해 바뀌었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

했다. 글릭스타인 회장은 “성경의 날’이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행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께 감사하는 모든 이들의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성경의 날은 미국성경협회와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유버전 바이블앱(YouVersion Bible App), 그리고 성경연합(Scripture Union)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성경을 기념하는 날이다.

글릭스타인 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행사를 열게 되어 몹시 기쁘고 모든 교파는 물론 예술, 사업, 스포츠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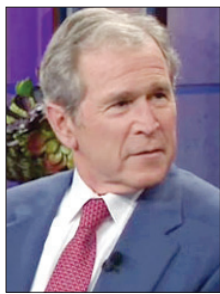
부시 전 美 대통령 “재임 시절 매일 성경 읽었다”

워싱턴DC 성경박물관 건립 프로젝트 지지하며 언급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개최된 워싱턴DC 성경박물관 건립 프로젝트(Museum of the Bible)를 알리기 위한 행사에 참여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서며 성경 박물관 대 표는 크리스천포스트 측에 이날 행사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성경박물관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성경박물관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이며,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회귀자료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성경박물관 건립 아이디어는 하비로비의 그린 회장이 처음 제시하고 2012년 5월만 달리에 상당한 국회의사당 인근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조지W.부시전대통령

그린 회장은 5년 전부터 박물관 건립을 염두에 두고 전 세계에서 고대 기독교 문서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성경박물관 건립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이다. 우리의 중대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독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인들에게까지도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프로젝트 위원회는 유서 깊은 박물관들이 많은 도시인 워싱턴DC의 중심에 성경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완공시 박물관은 지상 8층 규모에 이르게 되며, 500여 성경 관련 자료를 소장하게 된다. 또한 옥상에는 성경을 주제로 한 정원이 꾸며질 예정이며, 도서관과 미술관, 세미나실도 운영될 계획이다.

순현정 기자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 거부한 美 업체, 피소 위기

최근 미국에서 기독교인 제빵사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스닷컴이 7일 보도했다.

이 케이크는 ‘게이 혐오증과 트랜스젠더 혐오증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됐다. 평등위원회(The Equality Commission)는 어셔 베이킹 컴퍼니(Ashers Baking Company)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셔 베이킹 컴퍼니는 콜린과 카렌 맥아더(Colin and Karen McArthur) 부부가 소유하고, 그 아들인 다니엘 맥아더가 운영 중이다.

평등위원회는 지난주 어셔 부부 앞으로 보낸 문서에서 “회사가 케

이크 제작을 거부해 고객을 화나게 하고 불편함을 끼쳤으며,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 민법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니엘 맥아더는 “우리가 고객들의 주문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선정적·공격적 그림이나 비속어가 들어간 케이크 주문은 거절했다”면서 “이번 일은 전통적 결혼 가치에 대한 공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가졌던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KWMC 세계선교대회, 어린이-청년 대회도 함께

신임 대표의장에 제일장로교회 서삼정 목사 선출



KWMC 제27차 전국년차총회를 마친 주요 관계자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제27차 전국년차총회가 지난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서삼정 목사가 1년 임기의 신임 대표의장으로 선출됐으며, 2016년 열리는 제8차 세계선교대회를 위한 제반 사항 점검 및 방향과 비전을 결정하는 등 의미있는 모임을 가졌다. 더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5월에 뉴욕에서 있을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히, 제8차 세계선교대회에서는 김갑수 목사(뉴욕프라미스교회)가 이끄는 어린이 선교운동인 '4/14 윈도우'와 청년 선교운동인 지킴대회(사무총장 이동열 선교사, 이하 GKYM)와 함께 하기로 해 역대 대회 중 가장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워튼칼리지와 함께 바로 인근에 위치한 다른 칼리지도 빌리게 된다.

또한 200개가 넘는 선택강의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그 시간을 활용해 선교 지역별 혹은 영역별 전략회의로 할애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선교 전략과 대안이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신임 대표의장으로 선출된 서삼정 목사와의 인터뷰.



서삼정 목사

우선 신임대표의장으로 선출되신 소감을 나눠 달라.

“이번이 세 번째 대표의장직이라 크게 부담되지는 않다. 함께 일하는 실무진이나 의장단들도 이제는 거의 후배들이고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와서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2016년에 열릴 제8차 세계선교대회가 규모나 내용면에서 많이 커지기 때문에 임기 동안 이를 잘 준비하려고 한다. 우선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갖고 의장단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이메일로 나누기로 했고, 내년 5월에 만나 구체적인 의제들을 결정할 것이다.”

KWMC가 세계선교사적으로 갖는 가장 큰 역할과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우선 지난 30년간 KWMC를 통한 세계선교운동을 꼽을 수 있다. 미주 한인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온 것이 큰 보람이다. 또한 매 대회마다 수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해 왔다. 원래는 2010년까지 1,000명의 선교사 후보생 발굴이 목표였는데, 현재 이

미 3,700명 이상 발굴해 왔고 그 헌신자들이 대부분 청년선교운동인 GKYM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교파와 교단을 뛰어 넘어 전 세계 선교사들 간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역별 네트워크를 KWMC를 통해 갖게 된 점도 중요한 열매다.”

KWMC 30년 역사를 출판할 계획인가?

“처음에 미주 한인어린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애틀랜타에서 목회자들이 모여 2년 동안, 2월 첫 주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경수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당시 미주에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초청했는데, 그 분들이 최일식 목사, 고인호 목사, 이일상 목사, 한인관 목사, 이병희 목사, 손경환 목사 그리고 나를 포함해 7명이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KWMC가 태동됐으며,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런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세계 곳곳에 신학교 도서관과 교회에 비치하는 것을 이번엔 결정했다. 재정이나 시간, 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하겠지만 과거의 3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0년을 1세대 목사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KWMC가 이뤄져 왔다면, 앞으로 30년은 누가,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인가?

“이미 1세대 의장단들은 거의 다 일선에서 물러났고 나와 장영춘 목사님만 남았다. 나도 몇 번이나 물러나고자 했지만 상징적인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만류해서 아직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장단들은 1세대, 2세대 목회자들로 거의 교체됐다. 더불어 세무적인 실무진들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30년 이상 선교 현장 경험이 있으면서 선교학 박사 등 학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로 뽑으려고 한다. 이미 준비된 분들이 적지 않아 세대교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30년은 철저히 다음 세대를 앞세우고 일을 할 것이다. 다음 선교대회부터 어린이 선교대회와 청년 선교대회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세대 교체의 모든 준비가 됐고, 이들이 이 운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4년에 한번씩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개최하는 세계선교대회를 다른 지역에서 하기는 힘든가?

“매년 총회를 할 때마다 지역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시카고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미주에서 차로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지역이 시카고라는 점, 다른 하나는 KWMC를 초창기에 많이 도와주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기념하는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모인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또한 위튼 칼리지에서는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다. 엘에이나 뉴욕에서도 개최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대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카고 교계에서 대회 때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해주는데 아무래도 여러 번 대회를 하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해 준비할 것이다.”

박현희 기자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 (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 (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 말씀 중심 생활 /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7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료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넬렛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구약모임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성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32-0788 / kuinholly@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에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w@hotmia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진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3부예배 오전 12:22 오전 6:20 (토)
 주일-버질중학교 / 토요새벽-17와버몬트 크나-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1.5시간(대안교회)과 2.5시간(라파엘트 크나-620 S. La Fayette Park)

김기삼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만으로도 인연이 선택되며, 어인가가 정을 치우며, 선교영광을 승려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크나-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386-2233 / www.LASarang.com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대학청년부예배 오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f.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양성필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 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인병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수,토)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인병권 담임목사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이호민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마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 (EM) 청년부 오전 11:00 5부예배 오후 3:00 (EM) 청년부 오후 8:00

김마을 담임목사 장래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펜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후반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성현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호연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오후 12:00 (토/일)

최호연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약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8:00 (토)

곽덕근 담임목사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월드비전 우물파기 캠페인 성금이 전달됐다. ©월드비전 운영위원회

“에티오피아에 맑은 물 전해주자” 한인교회들 힘 모아

월드비전 ‘희망의 주일’ 행사 통해 2만 8천 불 모금해 전달

에티오피아에 맑은 물을 전해주는 데 애틀랜타 교회들이 힘을 모았다. 지난달 12일 애틀랜타 지역교회 곳곳에서 진행된 월드비전 ‘희망의 주일’ 행사를 통해 총 2만 8천 불 가량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월드비전 애틀랜타 운영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 성금은 지난 29일(수)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월드비전 측에 전달됐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에티오피아 땅에 우물을 파 주기 위해 동참한 교회들은 예수소망교회(담임 박대웅 목사),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 크리스탈한인교회(담임 류성진 목사), 아틀란타중앙교회(담임 한병철 목사),

베다니감리교회(담임 남궁전 목사), 비전교회(담임 정경성 목사) 등이며 오대기 장로, 지정만 장로, 심우철 장로, 채현정 장로, 전병국 목사, 김춘경 집사 등 운영위원회 이사들, 또한 최신애 목사(크리스탈한인교회)도 동참했다. 특별히 버지니아의 KNK 미션 김용환 장로도 멀리서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 운영위원장 신윤일 목사는 “각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고, 운영위원장들과 여러 단체들, 사업체들이 협조해서 목표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 감사하다”고 밝혔다.

신디 김 기자



시애틀순복음교회에서 고전 심리학 세미나가 열렸다.

“고전 심리학과 함께 떠나는 내면세계의 여정”

11월 4일(화)-5일(수)에 시애틀순복음교회(담임 강태욱 목사)에서 한국인 상학연구소 대표 데이빗 이(이요한) 교수를 초청하여 “고전 심리학과 함께 떠나는 내면세계의 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인상학은 인문사학의 줄임말로서, 신학과 인문학, 상담의 비판적 대화를 통해 기독교 전통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순수 학문”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상학연구소는 역사학과 상담, 그리고 인문학 중 역사와 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역사와 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목적은 2천년 전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천년이 지난 후인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에 더욱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다.

이 교수는 “에니어그램은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고, 에니어그램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을 지니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색색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원색의 아름다운 세상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처럼, 에니어그램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에니어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에니어그램을 알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어 막연하고 혼란스러웠던 과거의 경험과 내면의 상황을 에니어그램 안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니어그램은 1970년대 미국에 뿌리내려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토대로 연구,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성격유형 검사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 상담, 조직, 영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에니어그램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관계치료(부부치료, 가족치료, 인간관계치료)의 핵심원리로 작용되고 있다. 이 교수는 에니어그램을 통해 아홉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의사소통 방식, 문제해결 방식 등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유

형들과 관계를 갖고, 각각의 유형은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일부로서 가치를 지니고, 사람들이 인간 행동을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에니어그램은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고, 에니어그램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을 지니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색색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원색의 아름다운 세상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처럼, 에니어그램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에니어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에니어그램을 알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어 막연하고 혼란스러웠던 과거의 경험과 내면의 상황을 에니어그램 안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에니어그램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동기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얻음으로써, 현재의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들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고, 에니어그램은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신과 동반자간에 신뢰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에니어그램은 동반자를 이해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나의 필요와 바람, 두려움 등)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그는 에니어그램과 관련하여 연약신학에 대해서 “연약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다. 연약은 약속만 있지 않고 요구도 함께 있다. 믿을 때에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해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말씀을 전하는 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

“성도들이여 깡과 끼, 피와 꿈을 가지라”

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 초청 말씀사경회

크리스탈한인교회가 한국대학생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 초청 말씀사경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열린 이번 집회에서 박성민 목사는 ‘리셋된 인생을 살아갑시다’란 주제의 말씀으로 큰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다.

집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집회는 특별히 아틀란타맨즈양상블(단장 이봉협)의 특별연주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교회합창곡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민 맨즈양상블은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무대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강단에 나선 박성민 목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를 시작하는 7가지 단어를 기억하자”고 운을 폈다. 바로 깡, 끼, 끈, 꼴, 피, 꿈, 쫓이다.

박성민 목사는 “먼저 ‘깡’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있게 살라. 능력은 5배의 차이를 만들지만 의식은 100배의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끼’를 발휘하라. 누군가와 비교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셨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끈’을 붙잡는 것도 잊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수평적 관계 또한 해결 될 것이다”라고 설

명했다.

네 번째로 ‘꼴’에 대해 설명한 박성민 목사는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얼굴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뀌는 데에도 7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기쁨과 감사의 생각들로 채워져 산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목사는 “다섯 번째로 ‘피’ 곧 지혜를 찾아 행하라. 지혜란 지식이 경험을 통해 바뀐 것이다. 무슨 일이든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된다. 도전하라. 반복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여섯 번째로 ‘꿈’을 가지라.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음식 없이 30일을, 물 없이 3일을 살아도 희망이 없이는 3초도 살 수 없다. 민족과 교회 위해 같이 꿈을 꾸고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목사는 “인생의 마지막에 ‘꼴’이란 후회를 남기지 말라. 인생은 결국 후회하느냐 후회 없이 사느냐이다.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라. 허드슨 테일러는 작은 것은 작은 것일 뿐이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큰 것이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신다.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꼴’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전했다.

앤더슨 김 기자



디딤돌선교회에서 제5차 사랑의 담요, 자켓 나누기 행사를 펼친다.

“추위에 떠는 거리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애틀랜타 디딤돌선교회 담요 나누기 행사

부쩍 추워지는 날씨에 거리에서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애틀랜타 소재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에서 ‘제5차 사랑의 담요/자켓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나눔은 11월 1일부터 2015년 2월까지 이어지며, 파인스트리트 파킹랏(Pine Street Parking Lot), 게이트웨이 쉼터(Gateway Shelter), 리커버리 센터(Recovery Center), 리커버리 센터(Recovery Center)에서 진행된다. 추수감사주일인 27일(목) 오전 10시에는 파인스트리트 파킹랏에서 특별 행사를 갖는다. 이날 음식은 카니 하우스(대표 박영규)에서 제공한다.

송요셉 목사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아직 겨울 옷을 준비하지 못한 많

은 노숙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이들에게 담요와 자켓은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긴 밤을 거리에서 또는 다리 밑에서, 빈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저들을 돕는 일에 긴급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권면했다.

모아지는 담요와 자켓은 매주 토요일 파인스트리트와 허트파크 등에서 음식봉사자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동참을 원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SS Mission P.O. Box 3101 Duluth, GA 30022으로 체크를 보내거나(담요 25불, 자켓 30불), 헌 담요나 옷도 도네이션 할 수 있다. 문의: 404-429-9072

신디 김 기자

O. C. / 일반인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s.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6: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7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복)
금요일 오후 7시(계시복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 1부 9:00am EM 1:30pm
장년 2부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Youth 예배 12:15pm 토 6:00am
Children 11: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Cloddard, Irvine CA 92618
T. (949) 341-0022 / (949) 398-7303
www.newlifek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오후 7:00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 대학학생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일반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일반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 삼가미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주들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는 주의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로 온전하신 우리 목회자를 돕는 공동체(2교)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a@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일 첫째주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필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대학교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아미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캐주얼 tv 초고속인터넷, 냉방,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 | |
|--------------------------------|---------------------------------|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 8. 각종 간질(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진다 |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LA 본점

“이슬람화된 성경번역본, 선교의 ‘대형 기름유출’ 사고”

링겔 교수 “복음을 원본 그대로 전해야”, 스펠 선교사 “내부자 운동은 반교회주의”



조슈아 링겔 교수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사람들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하기 위해 예수는 선지자로 보냄 받았다고 말하죠. 그들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자운동은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한 무슬림들’이라고 부르지만, ‘상대화’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혼합주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번역에서 완전히 제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무슬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몇 가지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구절들은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이상은 ‘아시아 교회의 다큐멘터리-간과되고 있는 문제’ 중 방글라데시 내부자운동 출신 현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증언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슬람 선교의 주요 선교 전략 중 하나로 시행된 내부자운동(Insider Movement)이 실제 일부 선교현장에서 ‘종교 혼합주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경 번역 과정에서 핵심 용어를 이슬람적 표현으로 바꾸면서 ‘성경의 이슬람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4 제6차 내부자운동 평가 컨퍼런스에서는 오늘날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터키 등 이슬람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자운동의 문제점을 다루고, 무슬림 가운데 지상대명령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경 중심적 선교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기독교번역교단(이슬람대책위원회)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회, 리버사이드스훈련원(RTI)이 공동주최하고 온

누리교회, 사랑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교계와 학계 이슬람 전문가와 교단선교부 실무자, 이슬람권 선교사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강의에 앞서 ‘아시아 교회의 다큐멘터리-간과되고 있는 문제’의 일부 영상을 상영했다. 가장 성공적인 내부자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현지인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직접 등장해 내부자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내부자운동에 깊이 관여했다가 지금은 현지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는 한 목회자는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당신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자다.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거짓말”이라며 “두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무함마드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젊은 교회 지도자는 “상대화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혼합주의를 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감히 성경에서 몇몇 구절들을 생략하기도 하며,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내부자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지인들은 “내부자운동은 신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무슬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스퀘어 미니스트리 대표이며 미선무슬림월드대학을 운영하는 조슈아 링겔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제 사역의 95%는 이슬람 선교에 교회를 동원하고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며 “저는 평생 이 주제(내부자운동)에만 소진돼 살기 싫지만, 이런 자리의 필요가 너무 급박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부터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매년 내부자운동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201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대학인 미국 리버티대학교에서 신학자, 내부자운동에 관여했던 목회자, 성경번역사역자, 비교문화론 연구한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 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고,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을 적극 초청해 함께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한국 컨퍼런스에서도 내부자운동 지지자들과 ‘맞짱 토론’을 하기 원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 성경의 이슬람화 문제 심각

조슈아 링겔 교수는 이날 “성경번역은 사회, 정치, 문화 등 각양각색에 맞게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지만, 전세계의 많은 성경번역이 개인의 취향을 따라 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번역본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정직하게 포함하고 있다면, 번역한 사람을 영웅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성경번역본이 타협하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현지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본이 흔들리게 된다”며 성경번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링겔 교수는 “그런 타협을 이끄는 주동적 그룹 중 하나가 내부자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슬림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성경번역본에서 사라져 버렸다”며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삼위일체를 싫어하는데, 특히 무슬림들이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자운동가들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번역자들이 장애가 되는 용어는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며 “신약에서 79번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왕’ 또는 ‘메시아’, ‘대표’란 말로 바꾸고, 성경에서 269번 언급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주님’으로만 표시했다. 우리는 그런 번역본을 무슬림에게 좋은 번역본이 아닌 순응하는 번역본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링겔 교수는 “이전에 내부자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현지 교회 리더십들은 ‘서구에서 온 돈 있는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그 같은 성경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도 이런 번역본에 뿌려지고 있다”며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이 성경번역을 읽고, 여러분의 교단이 이런 성경을 발간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성경번역본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터키 등 아랍어권 등에서 번역돼 현지 성도들에게 배포될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링겔 교수는 이런 사태가 마치 거대한 유조선에서 기름이 계속 유출되는 사건처럼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그는 “만일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면 제일 먼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청소하기 위해 세 그룹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환경단체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유출한 유조선 회사가 그 다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는 “실제로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해변에 사는 주민이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선교에서 기름 유출과 같은 대형사고인 잘못된 성경번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 사역의 주인인 세계교회와 이를 번역한 선교단체 소속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진정한 구원자를 뺀 구원 받을 길이 없는 성도들로, 이들이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성경번역본의 문제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복음, 원본 그대로 신실하게 전해야

링겔 교수는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원본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라며 “성령 하나님이 전세계 교회를 동원하여 무슬림 가운데 지상대명령을 완수하려는 지금, 우리는 ‘구원 받을 복음’만을 전달하는 제자로 서야 하고, 무슬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음에 동의하고 지상대명령을 완수하는 데 합류할 사람들이라면 어떤 교단도 상관없이 전세계 교회가 어깨를 맞대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며 지상대명령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나라?

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서아프리카 크리스천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에서 미개척 지역 사람들을 주로 선교하고 있는 존 스펠 선교사(John Span·캐나다)가 ‘내부자운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스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삼위일체와 교회는 예수님이 중재하신 왕국의 중심이다. 스어둠의 왕국은 실재하며 아주 사악하다. 스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희망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준다. 스오늘날 다른 종교들은 모두 어둠의 나라에 속한다 등을 꼽았다.



존 스펠 선교사

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준다. 스오늘날 다른 종교들은 모두 어둠의 나라에 속한다 등을 꼽았다.

그는 내부자운동 주장자들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모형의 공통점으로 스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통치하신다 스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에 우선하므로, 그리스도의 왕국 개념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스그들에게는 어둠의 왕국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또는 하나님 나라와 이슬람교 사이에 어두운 부분을 상정한다 스하나님 나라 모형 속에 기독교가 있고, 십자가는 있지만 교회는 없다 스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 중요한 요소처럼 그리는데, 이는 두 종교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길임을 암시한다 등을 나열했다.

존 스펠 선교사는 “이처럼 내부자운동의 하나님 나라 모형에는 ‘어둠의 나라’가 없어서, 그 모형만 믿으면 기독교를 믿진 이슬람교를 믿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예수님은 생애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하는 일로 보내셨다. 그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며 “내부자운동 주장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 나라 모형에 ‘교회가 없다’는 점이다. 그는 “성경은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가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말하지만, 내부자운동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반(反)교회주의”라고 경고했다.

이지희·이대웅 기자

공 고

음악 저작권 침해는 불법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 (CCM)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퍼블리싱 컴패니 (주)엘로힘 이피에프 USA는 2014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및 교회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등록 대상: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CCM)을 사용 하는 모든 교회

등록 방법: 웹사이트 등록

<https://elohimepfusa.com>

Tel. (213)736-0073

문의처: 문의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따라서 Elohim EPF USA는 자진 등록 기간에 등록된 교회에 한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Tel. (213)736-0073

<https://elohimepfusa.com>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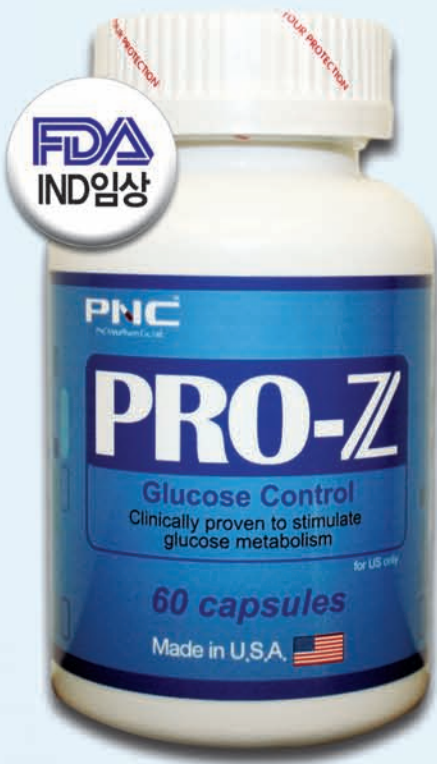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족, 신장부족, 간독성)과 광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 Mother's Care Pharmacy : 213-739-3030
6th Zion Market
- Vermont Galleria Pharmacy : 213-388-4100
벌몬 갤러리아몰
- Virgil Pharmacy : 213-384-1200
그랜스파 건물내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공공성 변증] 86세로 별세한, 현대신학의 거장에 대한 추념글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가 현대신학에 남긴 공헌 (5)

- I. 희망의 신학자라기보다는 보편성 내지 공공성의 신학자
- II. 보편사를 신학의 지평으로 제시
- III. 역사적 예수에서 출발하는 기독교론
- IV. 보편학문으로서의 신학 정립 시도
- V. 미래 우위의 사상이: 종말론적 존재론
- VI. 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증언
- VII. 신학과 자연과학과의 대화
- VIII. 하나님 통치 윤리 제시
- IX. 보편사적 이성의 신학자

X. 전통적 교리와 교회 예전 중요시

4) 종말론적 이원성 보존: 보편구원 아닌 구원과 심판 강조

더욱이 바르트나 몰트만의 신학은 한편으로는 교회정위적이나 그 신학이 지나친 낙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편화해론과 만인구원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신학은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선포해야 할 신앙적 의무를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상실하고 있다. 그리스도 구원의 보편화해와 만인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해소되는 것이다. 바르트나 몰트만의 신학에서는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 같은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 보편화해론적 구조 안에서 그 독자성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바르트와 몰트만의 신학은 교회 강단 설교의 중요한 요소(심판에 대한 경고)를 상실해 버리고 있다.

이에 반해서 판넨베르그는 종말론에 있어서 불신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명료히 말함으로써, 교회 메시지의 선포 과제(불신자와 악인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여기에 그의 신학의 교회공동체 지향적 성격이 있다. 그러나 동

시에 그는 종말론적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적 법질서를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영역의 질서(행함에 있어서의 인과 악인의 질서)를 신앙의 질서 외에 인정한다. 판넨베르그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의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수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라고 해석한다. 갇힌 자와 병든 자를 심방하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 헐벗은 자를 입혀준 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근거라고 본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심판의 근거다. 이런 점에서 그의 종말론은 종교개혁적 의인론에서 이탈하고 있다. 여기에 창조론적 법질서를 강조하는 그의 신학의 공공성 지향적 성격이 있다.

바르트나 몰트만이 종말과 관련하여 영원은 화해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하여 침묵하는 데 비해, 판넨베르그는 심판을 괴력한다: “영원은 심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이시며 역시 심판자로서 그의 창조주의에 굳게 서 있다.”(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Bd. 3,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3, 656.) 판넨베르그는 역사 내적인 심판을 말한다. “역사 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이 자신을 그들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넘겨주고, 주어지는 것에 놓여 있다.”(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Bd. 3, 657.)

바르트나 몰트만이 개인적 화해의 참여 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해와 구원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판넨베르그가 돌이킴, 말하자면 회개를 통한 개인적 복음의 수용이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필요 없는 객관적 화해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돌이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현재의 소식에 대한 진정한 수납은 없다.”(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Bd. 3, 659.) 여기서 판넨베르그가 하나님의 화해사건에 대한 개인의 개별적 회개행위와 세례받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성서적이고 종교개혁적 전통에 충실한 해석이다.

XI. 판넨베르그 보편사신학에 대한 극단 보수주의자들의 오해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과 재림과 종말이란, 일부 극단한 보수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하나의 신화적이거나 그 역사성이 의문시되는 오리무중의 사건이 아니라, 보편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다. 독일 사상가들에 대한 일부 극단 보수주의자들의 너무 좁은 해석과 정죄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판넨베르그가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계시의 직접성을 부인한다고 정죄한다. 그러나 이는 그의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판넨베르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도신경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강해하여 저서로 출판했으며, 온건하게 적용한 역사비판학의 테두리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고, 계시는 역사로서 다가온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보편사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편사의 주가 되신다는 기본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보편구원론자라고 정죄하는 것은, 위에서 필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현대의 보편구원론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 같이 판넨베르그는 바르트나 몰트만과는 달리 최후 심판을 인정하는 보수주의자이다. 필자가 쓴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기독교서회, 증보판, 2003년, 443-455)를 읽어 보면 이러한 오해는 풀릴 것이다.

그가 예수 부활 사건을 전설적으로 보아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는 비난도 바르지 않다. 판넨베르그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초기의 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설로 보지 않는다. 단지 그의 의도와는 달리 후기에 이르러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증명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점차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는 초기에 도입한 후기유대교적 묵시록의 죽은 자들의 보편적 부활의 지평 속에서 예수 부활이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후기 유대교적 묵시록적 지평이 보편사를 표상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역사관이었지 다른 종교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기된 것이다.
맺음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보편사 이성적 증언

판넨베르그는 86년이란 생을 살면서 보편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였다. 그는 신학이 공공의 학문이 되어야 하며, 예수의 부활과 신인(神人)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은 역사적 이성의 통찰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가 신학자로서 등장한 1960년의 유럽신학적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사실이 신학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일반 역사를 계시와 분리시키는, 볼트만의 실존주의 신학과 바르트의 신정통신학이 유럽신학계를 지배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판넨베르그는 현대신학이 상실한 역사개념을 기독교 신학의 보편적 지평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편사 가운데 미래의 힘으로 설명했다.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역사적 이성을 강조한 신학자이다. 그는 미래의 존재론적 우위를 말하고 있다.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론은 종말론적 미래론으로서 전통적인 미래론을 넘어서고 있다. 이 미래의 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초반부에 사용하신 지성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끝)

사흘만...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며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는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고민되거나 슬픈 일은 없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 부활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철학적인 삶의 태도인가요? 지금의 고통과 번뇌를 미래에 찾아올 즐거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녹일 줄 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무척 교훈적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통을 미래에 찾아 올 희망으로 녹일 줄 아는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1¢

최저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윌마 덕슨 | 대장간 | 160쪽

우리는 때때로 너그
러이 용서하면서 기
분 좋게 하루를 보내
지만, 종종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전전
긍긍하기도 한다. 책
은 일곱 가지 주제들
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
하고 토론하도록 유도한다.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룹 공부를 통해,
자신을 꺾달락할 수 없게 했던 외로움
을 떨쳐내고 각자의 장점과 통찰력들을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나눌 수 있다.



금혼을 구하는 기도

헨리 나우렌 | 포이에마 | 200쪽

저자가 1979년 2-8
월 제네시 수도원에
서 머물며 매일 쓴 기
도문을 선별했다. <제
네시 일기>와는 또다
른 감동을 느낄 수 있
다. 일과를 마치고 자
리에 앉아, 그 순간 마
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단순한 글로 기
록하는 것도 가치있으리라는 직감에 따른
결과물.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소망과 두려움을 날마다 당신 앞에 꺼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



심장이 뻘다

정수영 | 두란노 | 284쪽

탁월한 심장외과 의
사로서 '인간 재봉
틀'이라고까지 불리
는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을 따라가며 일터와
선교지에서 상한 심
장을 고치는 이야기
를 담았다. 미국의 한 심장센터에서 치료
전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며 의료진끼
리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는 제3세계 선교지에서 휴가
를 보내며 의술을 전하게 된다.



다윗의 의자

알란 레드파스 | 생명의말씀사 | 320쪽

매우 자주 들은 다윗
의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한다. 탄탄한 메
시지로 40년간 수많
은 독자들에게 꾸준
한 영향력을 미쳐 온
저자는, 마치 다윗의
인생 한가운데 들어
가 있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를 시편과 사
무엘, 열왕기와 역대기 등을 종합하여 강
해적으로 들려준다. '바닥에서 왕좌까지'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
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을 위
해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준다.



REVIEW

“성경 연구” 위한 추천도서 목록 2,200권 망라

7백여 권의 추천도서에는 간략한 서평도 포함

<성경 연구를 위한 손 안의 서재>
는 이름 그대로 성경 연구에 도움
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나열된 것은 아니
고, 1,300여 명의 학자들이 저술한
2,200권 가량의 도서 목록을 제공하
면서 특히 도움이 되는 7백여 권의
'추천도서'에 대한 간략한 '서평'을
달아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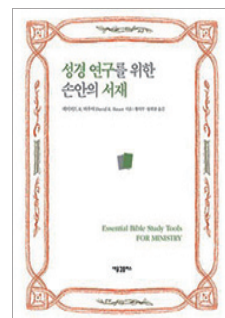
데이비드 바우어

성경 전체에 대한 주해서 목록부
터 구약과 신약, 초기 유대교 등에
대한 도서 목록들이 연구를 돕는다.
저자는 목록 선정 기준으로 △교회
의 신앙 전통 내에서 성경을 신학
적으로 해석하는 데 유익을 주는가
△해석의 역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성경 해석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
는 물론 '성경 텍스트'에 대한 직접
적 연구이나, 저자는 이러한 '2차 자
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한다. 그 이유는 △텍스트 연구 자
체에 도움을 주고 △성경 저자와 동

시대에 살았던 독자들이 가졌으리
라 추정되는 배경 지식을 제공함으
로써 성경을 바로 읽게 해 주며 △
성경 해석의 주된 흐름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성
경 해석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전체
로서의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교회의 몸부
림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수행되어
야 하는 작업이다."

'이 분야로는 국내 최초, 최고'라
는 소개와 함께 추천도서 목록들을
'감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
되지 않은 성서학 도서들이 많이 남
았다는 아쉬움과, 우리 학자들의 연
구 성과들이 이 목록을 채워갔으면



성경 연구를 위한 손 안의 서재
데이비드 R. 바우어
새물결플러스 | 594쪽

하는 바람도 느껴졌다. 저자도 "다
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작품들도
포함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성경신학계에서 활약하는 대부분의
학자가 서양인이기 때문에 의도했
던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며 "머지
않아 성경신학계를 이끌어 갈 중요
한 학자들이 제3세계에서 쇄도할 것
을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분야별로 번역된 도서들의 숫자
를 비교하면, 목회자나 학자들의 관
심사가 어느 쪽에 쏠렸는지도 파악
할 수 있다. 이 책에 대해 국내 신학
자들도 "매 학기 학생들의 동일한
질문들에 거듭 답해야 하는 수고로
움을 이제 덜게 됐다"며 대거 추천
사를 기고했다. 한편, 저자는 애즈
베리신학교의 성서해석학과 교수
로 재직 중이다. 이대웅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 척추 교정
- 골반 교정
- 자세 교정
- 근육 교정

한방 특진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삔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선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 이런분께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352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펀전이 전한 설교

‘불타는 천교도의 심장을 가진 복음전도자’이자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19세기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펀전(Charles H. Spurgeon)의 도서 두 권이 발간됐다.



내 하나님께 닿을 내려라
찰스 스펀전 | 좋은씨앗 | 200쪽

은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이지만 닷 역시 배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펠전의 외침
찰스 스펀전 | 생명의말씀사 | 160쪽

내 하나님께 닿을 내려라

〈내 하나님께 닿을 내려라〉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전엔 미처 몰랐던 것〉에 이은, 좋은씨앗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삶’ 찰스 스펀전 두 번째 시리즈이다.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모은 첫 번째 책에 이어, 소망에 대한 설교 6편을 담았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소망의 비밀’이라는 부제 아래, 저자는 ‘매일의 영적 싸움과 유혹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강력한 위로이자 가장 능력 있는 도구’인 소망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각 설교 뒤에는 ‘묵상과 기도’란을 마련해 내용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히 6:19)’를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스펀전 목사는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바다와 같고, 인간의 일상은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 우리로 말하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은 신세”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폭풍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소망의 닷을 기꺼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며 “그 닷을 잡는 것

스펠전의 외침

국내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스펀전의 이야기들을 모았다. ‘경고를 받으라’와 ‘돌이키라’, ‘영원한 일에 주목하라’ 등 3부로 나눠 11편의 설교를 들려주고 있다. 저자는 ‘악인의 끝’에서 “그저 악인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그는 마치 오래도록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피어오르는 화염이나 요란한 대포 소리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말과 같다.” 그는 교회에서 진지한 경고를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악인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겠지.”

심지어는 악인이 재판관석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악인들은 교회를 왕래하지만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저자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자신의 장례식에 비추어 스스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의 입에 다음과 같이 회자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만 들려고 노력했다. 비록 노력의 결과는 어설퍼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사람의 닷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대웅 기자

“죽음의 땅, 그곳으로 다시” 최광 선교사의 북한선교 이야기

“전엔 공안과 보위부 두려웠지만, 이젠...”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후 8년, 북한 땅에 그들과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는 아직 오지 못했다. 응답 없는 땅, 무슨 논리와 주장도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나고 먹고 자란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막을 권리는 없다.

최광 선교사(열방빛선교회)는 60년 이상 홀로코스트가 계속되고 있는 암흑의 땅에서 살기 위해 탈출한 이들을 돌보고, 불신과 배신과 미신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가 최근 저술한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에서는, 북한선교 실화를 담아내며 ‘북한선교의 필독서’가 된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후 8년간 변화된 북한선교의 상황과 탈북민들의 구원 혹은 좌절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책을 펴면 ‘성경을 소지했다’, ‘남한 선교사를 만났다’ 등의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성분이 좋지 않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초대교회 당시 집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인들에게 가해진 고문들이 21세기 오늘에 재현되는 것만 같다.

그동안 수없이 듣고 충분히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이제 별 감흥이 없다’고까지 생각했지만, 최 선교사의 이 ‘현장 리포트’를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 이를 바탕으로 나오는 기도가 얼마나 추상적이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정말 이 정도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탈북민들의 ‘신앙’이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는 탈북민들의 묵묵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슴 깊이 다가온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진 가운데서 온갖 프로그램과 교재와 소그룹으로도 되지 않던 ‘한 사람의 변화’가, 그곳에선 거짓말처럼 현실이 된다. 그것도 ‘말씀 암송’만으로.

“가난과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전에는 공안과 보위부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웠다(북한 형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정말 흔치 않다. 이런 참 복이 많다(북한 형제).”

“그분의 동행은 세상의 고통 속에 숨겨진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었다(북한 형제).”

GOP와 같은 이 ‘믿음의 최전방’에서는 치유와 기적, 성령의 능력 같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최후방’인 한국 땅에서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최광 선교사는 말한다.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 성경에서도 그랬고 현실에서도 그렇다. 하나님도 믿기를 바라서 기적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우리의 간구와 그분의 공험함으로 고쳐주시는 것 같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신령한 능력이다.”

치유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의심과 믿음을 각기 바라보면서, 그는 결론짓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적보다는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부터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기적은 뒤따라온다. 믿음의 열매가 기적이자, 기적의 열매가 믿음이 아니었다.”

각종 사상과 고정관념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최광 선교사는 탈북민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려는 사역을 한국에서도 계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 하지만, 탈북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길임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국금지를 당해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탈북민들이 있을 만한 곳이면 산간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탈북민들을 만나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라고 달라고 사정했다. 모든 탈북민들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희망은 한국행(行)이지만, 정작 한두해 한국에서 살아보면 오히려 제3국에서 헤매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은 임금도 높고 합법적 신분도 보장하며 정착금과 임대 아파트까지 선물하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도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최광 | 생명의말씀사 | 208쪽

차 힘들어하는 치열한 생존경쟁 사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깨닫는 삶의 진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탈북민들이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우기 가장 좋은 곳은 생존이 가장 불가능한 C국 땅이다. 많은 북한 선생이 이것을 배웠다. 공안들과 북한 보위부에 쫓겨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삶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는 지금 북한선교에 중추적 역할을 할 성전 건축으로 ‘탈북민 대형교회’를 세워, 합숙으로 전문 사역자들을 길러내 통일이 되면 일제히 북한으로 파송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북한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다. 다년간의 선교 경험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이는 북한 사람이다. 탈북민 한 사람을 변화시켜 북한 선교사로 키우는 것은 정말 크고도 실제적인 북한선교이다.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면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을 확신한다.”

이대웅 기자



영등포에 위치한 황금종교회에서 탈북민들이 찬양하는 모습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한 인슐린에서 최강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계기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어구 통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통불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통가스 치킨데리야끼 갈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3.8 2014 ALL IN STOCK @ \$36,120

Equus signature 2014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기독교 학자들,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버스 요금만으로

선교 대상국 장래 지도자 전도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서 “겸손하게 본 보여야”



최태연, 김기일, 구본급, 배종석, 손병덕, 정희영, 우중학 교수(왼쪽부터) 등이 토론하고 있다.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학회장 장수영 교수)가 8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총장 길자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회에서는 오후 주제발표로 장수영 학회장(포스텍)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구본급(한밭대 신소재공학과)·김기일(연변과기대 한국어과)·배종석(고려대 경영학과)·손병덕(총신대 사회복지학과)·우중학(서울대 천문학과)·정희영(총신대 유아교육과)·최태연(백석대 철학과) 교수 등 7인이 패널로 나서 '학자의 삶 속의 선교적 만남'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7인의 패널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독교적 학문 연구 추구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비전과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18년간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김기일 교수는 “중국인 학생들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교수가 전공 과목을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치면 저 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며 “중국은 술·담배가 일상화돼 있는데, 교수 250명이 아무도 술·담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교수로서 본을 보이는 것은 겸손할 때 가능하다”며 “예전에는 국문학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해외 선교에 비전을 가지신 분들에게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워서 가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본급 교수는 “신소재공학을 하면서, 제 전공과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 왔다”며 “결국 제 전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을 이용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을 풍족하게 만들었지만 자연과 인간을 파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독교경영연구원을 5년째 이끌고 있는 배종석 교수는 “경영학자로서 하나님나라 관점으로 경영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적 학문 추구였다”며 “대학원 시절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고민했고, 경영학을 20여년 하고 나서는 경영학이 워낙 복잡하고 다원화돼 있어 ‘콜리아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지금은 진정성 있는 동역자를 찾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손병덕 교수는 “사회복지는 이론과 실천 모두 출발이 기독교였지만, 갈수록 세속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엄격하게 훈련받지 못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비윤리·비도덕적 모습이 사회에 비춰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백했다.

정희영 교수는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인본주의라는 ‘견고한 진’이 강력하다”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론이 인본주의에 물든 상황”이라고 토론했다. 그는 “더구나 그 이론에 의해 인격이 형성된 교사들을 가르쳐야 하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다”며 “국가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했다.

우중학 교수는 “과학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없다”며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밝히는 것이므로 근원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은총 관점에서 과학자의 삶이 하나님나라의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봐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의 삶과 실천의 영역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며 “과학자의 연구 주제와 동기, 태도와 해석, 삶의 조망 등에 있어 기독교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기독교인 과학자라고 하면 과학을 부정하는 이미지 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일반 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노벨상을 받기 위해 연구한다면 그 동기는 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창조 세계 안에 담긴 지식을 탐구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근원적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혼자 할 수는 없다”며 “같은 동기를 가진 학자들이 네트워크해서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연 교수는 “기독교 철학의 어려움은 결국 이론만으로 철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과 철학적 사고·학문이 함께 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그것을 통합해주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철학을 비판하는 신학자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경험의 능력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철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제 신앙과 제가 여태까지 했던 학문을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통합할 수 있는가를 추구하게 된다”며 “그럴 때 공동체가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고, 동역자들을 통해 힘을 얻게 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2014 유학생 선교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사당동 총신대 종합관 시청각실에서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문성주 목사(KOWSMA) 주최로 진행됐다.

‘세계 유학생과 미래선교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KOWSMA 실무회장 문성주 목사(글로벌비전교회)가 ‘세계 유학생 선교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 목사는 전략적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유학생과 유학생 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피고, 기관과의 협력방안과 미래선교에 있어 유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기 위한 훈련방향을 모색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2014년 1월 현재 234개국 8만여명에 달한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삼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직 또는 한국 관련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6,777명, 베트남 4,717명, 몽골 3,683명, 일본 2,615명으로 ‘선교 대상국’이 나란히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들이야말로 ‘황금어장’인 셈.

문성주 목사는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장래의 글로벌 지도자들이자 귀국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이들”이라며 “한국 선교사들이 아직 가지 못한 국가도 65개국이나 되는 가운데, 우리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만으로 해외 대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그들과 대화도 용이하다”며 “또 제한되고 닫힌 본국에서 벗어나 있어 복음에 상당히 수용적·개방적”이라고 강조했다.

유학생 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바나바가 바울을 지원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연결시켜 줬듯, 한국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선교단체 리더들이 유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회와 선교단체, 교단과 NGO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유학생 선교의 미래로는 먼저 ‘자비량 선교사의 증가’를 전망했다. 그는 “미국도 19세기 말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을 선교지로 보냈지만, 1920년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며 “한국교회가 위기를 벗어

나지 못할 경우 재정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데, 이 영향은 선교사들에게 직접돼 자비량 선교사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제 문화교류 차원의 활동 개발’도 필요하다. 그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본질에 대한 충성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나라 관점에서 선교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은 유학생들과의 교류 증진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교사들이 국제교류문화원을 운영하거나 이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문화 교류 차원에서 유학생들을 끌어올 필요도 있다고 했다. 또 기독교 문화 확산, 국제학생을 위한 기독교 전문 상담사 양성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학생들이 한국을 떠난 후의 돌봄도 중요하다. 문 목사는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만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국 후에도 SNS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수련회를 열 수도 있고, ‘국제 심방’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현지 선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적자료를 쥐 계속적 양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귀국 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취업 문제인 만큼, 현지 공동체에 졸업생 리더를 심어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성주 목사는 “유학생 선교는 차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십을 키워 나가는 교회와 선교단체, 전체 선교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라며 “이는 곧 한국·세계 교회 및 선교계를 이끌어 갈 젊은 리더십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 주신 유학생들은 무엇보다 ‘전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며 “한국 선교계도 패러다임을 전환해 해외선교 못지 않은 국내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 기도와 훈련 및 영적 자산을 집결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에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놓고 한양대 조인휘 교수와 에디오 피아인 에브라임 해센 서울대 박사가 사례를 발표했으며, ‘한국과 세계 유학생 선교의 방안과 전략’에 대해 강병문 선교사(GMS), 김민섭 목사(TCI 이사장), 배영선 선교사(GMS), 조인휘 교수, 김동식 선교사(유학생 사역)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대웅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 (c) (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지부장: 김경호 목사

☎ 213.249.1161
shelby.moon65@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LA

☎ 949.864.9162
cmm6791027@gmail.com

*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Thanksgiving Special

쏘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최신형 2015 SONATA SE

\$145 ^{+TAX} 36mon.

MSRP: \$22,085, \$1,45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13,471, LEASE CASH \$500, VALUED OWNER \$500, MILITARY \$500, COLLEGE GRADE \$400

MODEL #28402F45



신형 2014 ELANTRA LIMITED

FULL OPTION

\$145 ^{+TAX} 36 Mon.

MSRP: \$25,435. \$3,4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14,243, VALUED OWNER \$500, HOLIDAY BONUS \$500, MILITARY \$500, COLLEGE GRADE \$400

MODEL #46462F4P



최신형 2015 EQUUS SIGNATURE 'DEMO'

\$485 ^{+TAX} 36 Mon.

4대 한정

MSRP: \$62,450, \$4,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32,474, LEASE CASH \$2,000, VALUED OWNER \$1,000, MILITARY \$500, COLLEGE GRADE \$400

MODEL #E0422R85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찰리 정 | 626.513.4981



스티브 장 | 626.513.4006



저스틴 길 | 626.513.458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